곡성, 민관산학 협력 '지방소멸 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서 기금사업 발굴·투자계획 논의
실무협의체 활성화 총력…"기금 우수지역 선정 노력"

곡성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통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실무협의회 위원과 기금사업 추진 부서장, 실무팀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 전략회의는 곡성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2년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상생협력 협력단을 출범한 이래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논의하는 지역 네트워크 창구로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워크숍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군청 내 부서별 기금사업 발굴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을 위해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전략 방향과 중점사업 등을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공유했으며, 보고 후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곡성군은 최근 군청 대통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실무협의회 위원과 기금사업 추진 부서장, 실무팀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투자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곡성읍을 중심으로 소비·체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에 집중투자하고 로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력을 더욱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인구 유입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농촌유학 청년부모층, 청년창·농업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곡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비와도 같은 재원이다"며 "군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반드시 기금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남에서 2번째로 높은 지방소멸기금액인 472억원(기초 352억원, 광역 120억원)을 확보해 생활인구 유입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정착 지원, 정주인구 유입 활성화 등 3개 전략 과제별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화순, 청춘신작로 버스킹 시즌 개막

오늘 어울림광장서 거리문화의 향연 첫선

화순군은 16일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올해 첫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을 무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이다.

올해 첫 버스킹 공연인 만큼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한층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개막 무대에는 총 5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매력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과 소통하는 보컬 공연의 '하랑 더 보이스', 에너지 넘치는 스트릿, 힙합 댄스 공연의 '킵 댄스 스튜디오', 감미로운 색소폰 3중주로 분위기를 더할 '지오윈드 앙상블', 한국 무용 공연을 선보일 '아리아 무용학원', 생동감 넘치는 밴드 음악의 '자유곡선'이 무대를 꾸민다.

이번 시즌 개막 공연 현장에는 다양한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개성 있는 캐리커처를 제공하는 포토카드 캐리커처 그리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풍선 아트 체험,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알아보는 지문 적성검사 체험이 마련돼 다채로운 문화 소풍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국보순회전 특별전시

20일 개막…'이건희 컬렉션' 등 작품 8점 선봬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라는 주제로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특별전시를 오는 20일 개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보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국보급 분청사기 가운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작품들을 선보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80일간 진행되며, 보물 '분청사기 상감 인화 연꽃 넝쿨무늬 병'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분청사기 등 총 8점의 작품이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이번 국보순회전이 고흥군민을 물론 인근 지역민들에게도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3회 보성 티 마스터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참가한 유수정씨가 개발한 '보성 말차 아인슈페너'가 대상을 차지했다.

보성 티 마스터컵 '성황'…전국 티 마스터 한자리

전국서 112점 출품…'보성 말차 아인슈페너' 대상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3회 보성 티 마스터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티 마스터들이 보성 차와 창의적 부재료라는 공식 아래 새로운 특색(시그니처) 음료를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올해 대회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참가한 유수정씨가 개발한 '보성 말차 아인슈페너'가 대상을 차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드러운 크림과 진한 보성 말차가 어우러진 이 음료는 비주얼, 맛과 향, 시장성과 창의성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얻으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대회는 예선(광주·서울·부산), 준결선(서울),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12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중고등학생부터 전문 바리스타, 음료 프랜차이즈 종사자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보성 차의 무한한 가능성을 음료로 표현했다.

심사는 맛과 향은 물론 텍스처,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에는 음료 개발 분야의 전문가와 대형 프랜차이즈 R&D 책임자, 식품기업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대회 관계자는 "올해 티 마스터컵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음료가 많이 출품돼 보성 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보성 차가 전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티마스터컵은 프랜차이즈 협업과 수상자들의 티(Tea) 카페 메뉴 출시 등 실질적 성과를 이어가며, 국내 차 음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LOCAL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여수,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
고교생·학교밖청소년 등 21명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5년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올해는 고등학생 19명, 학교밖청소년 2명, 모두 21명의 청소년을 참여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기회의, 문화체험,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 및 의견제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형규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여수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
율산마을·여다지해안 일대

장흥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율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안양면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율산마을과 여다지해안 일대를 지역의 문학 유산과 자연환경, 공동체 정신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율산마을은 장흥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가 집필 활동을 하는 곳으로 문학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인근의 여다지해안은 서정적인 해안 풍경이 어우러져 있으며 '문학산책길'이 조성된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승원 작가의 작업실 '해산토굴'을 기점으로 율산마을과 여다지해안 문학산책길을 중심으로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율산마을과 여다지해안은 장흥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며 "이번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품격 있는 거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